

- 주요 뉴스: 미국의 소비회복, 금년 추수감사절 및 연말 기간에도 지속될 전망
 - 골드만 삭스,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유연한 통화정책 필요
 -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 -1.6으로 전월(1.0) 및 예상치(-0.5) 하회
- 국제금융시장: 미국 증시는 휴장. 유럽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우려 지속
 주가[휴장], 달러화 약세[-0.1%], 금리[휴장]

- 주가: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
 유로 Stoxx600 지수는 의료보건주와 기술주 강세 등으로 0.4%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휴일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소폭의 등락 이후 하락 마감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상승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추수감사절로 휴장
 독일은 역내 봉쇄 조치 강화 가능성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191.3원, +0.2원) 포함, 한국 CDS 포함

		11/25일	11/24일	전일대비			11/25일	11/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4,701.5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1.63%	-
	유럽	481.72	479.69	0.42%		독일	-0.25%	-0.23%	-2bp
	중국	3,584.2	3,592.7	-0.24%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29,499	29,303	0.67%		중국	49bp	49bp	0bp
	한국	2,980.3	2,994.3	-0.47%	위험 지표	EMBI+	-	391	-
환율	달러지수	96.79	96.88	-0.09%		VIX	휴장	18.58	-
	유로화	1.1209	1.1199	0.09%		WTI유	78.03	78.39	-0.46%
	엔화	115.36	115.43	0.06%	원자재	구리	443.8	445.9	-0.48%
	위안화	6.3862	6.3924	0.10%		금	1,788.9	1,788.6	0.01%
	원화	1,190.2	1,186.5	-0.3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소비회복, 금년 추수감사절 및 연말 기간에도 지속될 전망

- 미국의 최대 소비가 발생하는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Adobe Analytics는 금년 11~12월 기간의 온라인 소비가 전년동기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또한 미국소매협회(NRF) 설문조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도 64%로 전년(51%) 대비 증가. 그 동안 일부에서는 제품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에 따른 제품 부족으로 소비부진 가능성을 제기
- 하지만 팬데믹 시작 이후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저축 증가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 또한 소비자들은 예년보다 연말 소비를 일찍 시작하여 제품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WTO 사무총장,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일시적 현상

-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해당 문제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고 주장. 또한 이러한 문제는 내년 중에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골드만 삭스, 연준의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 연준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월별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확대(150억달러→300억달러)하여 3월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 또한 내년 3회(6월, 9월, 12월)와 2023년 2회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추정

■ 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유연한 통화정책 필요

- 다수의 위원들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나,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상승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 이에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독일 중앙은행, 국내 은행들은 주택가격 조정에 대비한 완충 장치가 요구

- 팬데믹 이후 최근에 경제성장이 회복되면서 은행대출도 빠르게 늘었기에 당국은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

■ 독일 12월 GfK 소비자신뢰, -1.6으로 전월(1.0) 및 예상치(-0.5) 하회

-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재확산 및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지속 등에 기인. GfK의 Rolf Buerkl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봉쇄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

■ 소시에떼 제네랄, 유럽 주가의 상승은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

- Roland Kaloyan 스트래티지스트는 ECB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하는 미국 연준과는 다르며 미국 주가 대비 유럽 주가는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 Stoxx 600 지수는 2022년 520으로 마감하여 현 수준에서 8%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스웨덴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금리인상은 2024년 말에 가능

- 최근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내년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Capital Economics의 David Oxley는 3년 후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으나, 이전과 같이 단호하게 완화적(dovish) 기조 유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평가

■ 일본 정부, 소비는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 병목에 따른 생산활동 둔화는 지속

- 정부의 11월 월례 경제보고에 따르면, 코로나 19 감염 완화 등으로 소비활동은 향상. 그러나 중국의 경기 부진이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물가상승이 소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 관찰 중이라고 발표

■ 중국 증권당국,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상장폐지 방지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

-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자국 기업 퇴출의 핵심 원인인 회계감사 기준 충족 관련 현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 현재 미국 당국은 3년 연속 특정 회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퇴출 조치를 시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1/25 현지시각 기준)

- 일본 9월 경기동행지수: 100.9, 8월(101.3), 예상치(99.7)
- 독일 3/4분기 성장률(수정치): 1.7%, 2/4분기(9.8%), 속보치(1.8%)

■ 주요 경제 이벤트(11/26 현지시각 기준)

- ECB 라가르드 총재 및 슈나벨 이사 강연, 일본 11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아시아 국가, 성공적 방역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예외 지대로 평가 - Financial Times**
(Asia is the global inflation exception)
 -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이 부재. 이는 성공적 방역으로 대규모 봉쇄 회피(한국), 특정 지역 및 제한적인 기간의 봉쇄(중국 및 대만)가 가능했기 때문
 -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품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차질도 적은 편. 또한 기업은 임금상승 등의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가능. 이와 같은 아시아의 상황은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
- **미국의 인플레이션, 서비스 물가 상승 고려 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WSJ**
(Another Reason Inflation May Be Here to Stay)
 - 미국의 서비스 물가는 팬데믹 이전 연평균 2.8%상승하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 그러나 서비스 물가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경우 잘못된 산정 방식 등으로 공식 서비스 물가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되었을 소지
 - 이는 노동통계국이 월별 통계를 이동평균방식 형태로 계산하여, 이미 상승한 임대료가 물가에 정확하게 반영되는데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 또한 인플레이션은 임금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의 상승 추세가 자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편
- **미국 달러화 강세, 신흥국 차입비용 증가 등으로 세계경제에 위험 요인 - 블룸버그**
(Is a Strong Dollar Bad for the Global Economy?)
- **미국 바이든 정부,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미흡하면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 - Financial Times**
(Obama-era 'shellacking' looms unless the Fed wakes up to inflation)
- **미국과 중국, 유가 안정을 위해 공조하지만 중동 관련 갈등은 여전 - 블룸버그**
(China and the U.S. Can't Break Their Oil Market Codependenc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